팔공산 갓바위

현대불교

hyunbulnews.com

안내 (02)2004-8200 구독 (02)2004-8212

제859호 2011년 10월 26일 수요일 (음력 9월 30일 · 불기 2555년 · 주간)

우리문화재 ▶3면

공력을 들이면 들인만큼 나오게 돼있어요.
마음을 크게 쓰는법이 부처님 법입니다.
서암정사 회주 원응 스님

선거 하세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간 불교 공약이 뚜렷한 차이가 없는 가운데 각 후보자들이 불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단일 박원순 후보는 10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108산사 순례기도회 5주년 기념 대법회'에 참석해 각자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 불교 문화유적 보전을 위한 전통문화보전법을 제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나경원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조계사 성역화 사업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박원순 후보는 고등학교 때 청담 큰스님이 지도하는 룸비니학생회 활동을 했고 광덕 스님의 지도아래 불교학생회 활동을 해왔다. 또 2007년에는 만해대상, 2009년에는 불교인권상을 받은 불자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 박 두 후보는 행사 참여에 그치지 않고, 24일에는 조계사에서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선거 막판까지 불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불교 관련 공약은 대부분 연등축제, 템플스테이, 전통문화거리 조성에 집중돼 있을 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누가 당선 후 강하게 공약을 실천할 것인지가 불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나경원 후보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통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경복궁-북촌 한옥마을-인사동-조계사-운현궁-창덕궁-종묘'를 잇는 전통문화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마케팅과 연계해 안정적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후보는 "연등축제와 사찰음식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세계인의 축제인 연등회와 어울림 마당 지원에 관한 체계를 확립할 것이다"고 밝혔다.

후보들, 불심(佛心)에 호소
템플스테이 지원 등 강조
공약 차이 없어 실천 관건

박원순 후보 역시 조계사가 포함된 삼청동 가회동 인사동 청계천 등을 한국의 전통문화축으로 연결해 전통문화역사마을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박 후보도 연등행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는 모두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 후보는 중앙정부와 연계해 템플스테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제회의와 세미나에서 전통사찰을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박원순 후보 역시 템플스테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전통사찰과 템플스테이는 한국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당선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종교 갈등을 고려한 탓인지 종교 관련 인사 정책도 빼놓지 않았다.

나경원 후보는 불교계와의 안정적 소통을 위한 담당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원순 후보는 종교화합과 소통을 위해 종교계에 식견이 있는 인사를 시장 직속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6일, 서울 시민의 선택에 수도권 포교의 미래가 달렸다.

박기범 · 이나은 기자

859호 CONTENTS

종합 2~4
통일부 장관, 조계종에 사과
조계사, 포교 패러다임 바꿔
양용은 골퍼 홍보대사 위촉

인터뷰 · 고은 시인 5

평화대장경판 봉안법회 10

현장속으로 11
조계종vs곰두리 축구단 친선경기

만산홍엽(滿山紅葉) 전국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 가운데 설악산이 먼저 절정을 맞았다. 10월 18일 백담사가 있는 백담계곡에는 많은 불자들과 관광객들로 붐볐다. 계곡에는 불자들의 서원이 담긴 돌탑들이 넘쳤고, 숲은 간절한 서원 만큼이나 붉게 물들어 갔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동국대 앞 선교 막던 스님 고소 당해

종립 동국대 앞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는 교인들을 제지하던 스님이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것으로 밝혀져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국대 교법사인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제정 스님은 10월 21일 "인근 교회에서 선교활동을 위해 학교로 들어와 주의를 줬지만 무시당해 유인물을 거두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인 9월 21일 20~30대 추정 여성 4명이 학교를 찾아왔으며 스님은 선교활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그들의 유인물 배포를 막아섰다. 유인물에는 하나님 존재와 종교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설문조사, 교회 소개 등이 담겨 있었다.

다음날 목사를 포함한 교인들은 동국대 법당인 정각원에 몰려와 전날 스님이 수거한 유인물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종립학교인 동국대에서의 선교활동 외에 더욱 불교계의 공분을 사는 것은 이들 교인들이 스님을 '업무방해'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다.

한편, 동국대에서는 1990년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만든 동국대와 불교의 상징인 코끼리 장엄등이 3년간 불탔으며 2000년 동국대 본관 앞 청동 석가모니불에 붉은색 십자가가 그려지는 사건을 비롯해 크고 작은 훼불행위가 진행됐었다.

유종우 불교대 학생회장은 "일반 학우를 위장해 강의실을 빌려 예배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학교를 찾아오는 인근교회도 한두군데가 아니다. 역대로 불교대 학생들이 선교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변화 위한 비구니계 목소리 듣겠다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당선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구니계의 목소리를 화합으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으로 명우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명우 스님은 1366명의 투표인 중 765표를 획득했다. 같이 선거에 후보로 나선 운달 스님은 564표를 얻었다.

선출 직후 운달 스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명우 스님은 취임 소감으로 화합을 강조했다.

명우 스님은 사상 첫 선거를 치룬 소감에 대해 "불교 발전을 위한 비구니계의 여러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며 "이번 선거가 획기적인 만큼 운달 스님의 공약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명우 스님은 1937년 생으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동화사에서 사미계를 수지, 혜암 스님을 계사로 수덕사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충남 개심사에서 성능 스님 문하 사교과를 수료하고 경북 청암사에서 고봉 스님 문하 대교과를 수료했다. 동화사 내원암 수선안거 이래 1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미얀마 마하시 수도원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명성여고 교사를 역임했으며 중앙포교원 최초 상임포교사를 맡는 등 교육 · 포교 일선에서 불법홍포에 나서왔다. 제 7 · 8 · 9 · 10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단일계산특별구족계 사미니, 비구니 갈마위원, 전국포교사단 부단장, 광동학원 이사, 목동청소년수련관 관장, 전국비구니대학 학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국비구니회 서기 · 교무 · 총무부장 ·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목동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구립 발산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장, 구립 공항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장,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특별계단 존중아사리를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나는 기자다

불교계 최고 전문지 〈현대불교신문(현불뉴스)〉이 신심과 열정을 갖춘 인재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의 정법을 통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집부문	전공분야	모집인원	근무지역
현대불교신문(현불뉴스)	취재기자(신입 · 경력) 편집기자(경력)	전공 제한없음	0명	서울

지원자격
가. 2012년 2월 4년제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단, 해외소재 대학의 경우 기졸업자에 한함
나. 성별 무관
다. 단,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에 한함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필기시험(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함. 불교 · 일반상식)
다. 면접

제출서류
가. 이력서
나. 자기소개서
다. 포트폴리오(경력자에 한함)

전형일정
가. 10월 26일~11월 4일까지 이메일 접수
(formula666@paran.com)
나. 11월 8일 1차 합격자 발표(개별통지)
다. 11월 14일 2차 필기시험 · 3차 면접
라. 11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지)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1차 합격자에 한함)
각종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국가보훈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다. 경력자 우대
라. 급여조건은 회사 내 규정에 한함(최종합격 후 면담에 의해 결정)
마. 문의사항은 formula666@paran.com 혹은 (02)2004-8205
홈페이지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참조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2011년 불교 총지종 "사회화합과 계층간 융화의 한마당"
40년 기념 및 통일음악예술제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Buddhist Chongji Order

2011년 10월 29일(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KBS 홀

주 최 : 불교 총지종
사 회 : 김자영 (전 KBS 아나운서)
연 주 : 메디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출 연 : 불교 총지종 마니합창단, 금강합창단, 만다라합장단
특별출연 : 주현미, 안치환, 추가열
최소리의 아리랑 파티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불교TV / BBS 불교방송 / 법보신문 / 우리불교 / 불교플러스
현대불교신문사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중연합 /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